#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한다

##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대답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은 요즘 남조선군당국이 우리 군대의 정당한 화력타격훈련을 두고 횡설수설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된것처럼 지난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판정을 위해 조직된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령해권안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수 없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이번 화력타격훈련을 두고 중장거리미싸일발사도,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도 아니므로 그 무슨 《약속위반》이 아니라는 립장을 밝혔다.

더우기 발사한 비행물체가 조선동해의 동북쪽 아군수역에 떨어져 미국이나 남조선, 일본 그 어디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왕청같이 남조선에서 황당무계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7일부터는 남조선군부가 대변인을 내세워 우리의 훈련에 대해 《북과 남이 약속한 군사적합의취지에 어긋난다.》, 《군사적긴장을 불러오는 실전훈련이다.》, 《긴장고조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횡설수설해대고 있다.

우리에게 당치않은 험태기를 씌워보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조선군부만은 우리에 대해, 특히는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할 체면이 없다.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숱한 비행대력량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를 겨냥한 도발적인 련합공중훈련을 두주일동안이나 벌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에서는 상전의 《싸드》전개훈련에 멍석을 깔아주었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을 발사한데 대해 꿀먹은 벙어리흉내를 내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할짓은 다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싶다.

남조선군부에는 미국과 함께 벌려댄 련합공중훈련이 화려한 교예비행으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축포처럼 보이는 반면에 동족의 전술유도무기는 제 머리우에 떨어지는 생벼락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병적으로 반응하는 남조선군부의 섬약한 신경이 걱정스럽다.

남조선군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는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그 정도의 화력타격훈련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보게 되는 경우 혼절하지 않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허튼소리를 쉐쳐대기 전에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서를 다시 펴놓고 우리와 마주앉아 무엇을 합의하였는지 글귀부터 똑똑히 들여다보고 저지른짓을 돌이켜보는것이 순리일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배신적으로 저지른 도발행위들로 하여 제아무리 발이 저려난다 해도 함부로 상대방을 걸고들 《용기》가 나지 않을것이며 동족에 대해 혀를 가볍게 놀리다가는 뭇매를 맞을수 있다는 조심성도 생기게 될것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저들이 과거의 군사적도발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군대의 방아쇠가 몇번이나 당겨질번 하였는지 알고나 주절대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과 군사적합의서에 도전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공개된 적대행위는 말할것도 없고 은폐된 적대행위의 2중적작태가 온 민족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하다가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기 십상이니 입건사나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올바른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바라고있다.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는 3차례에 걸쳐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였으며 북남선언들이 채택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하였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기류가 감돌고 우리 겨레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였다.

지난해에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치였으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가 삼천리에 차넘치였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고 력사를 대결과 긴장격화의 과거에로 되돌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선언들에는 북남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가 열려지게 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리행하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민족의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 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외세가 아니라 제 민족이 우선이다.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도 민족자주의 정신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주대와 주견도 없이 분주다사하게 돌아치며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지고 민족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오늘날 북과 남사이에 어렵게 마련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국도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타파하고 민족화합과 평화번영, 통일의 앞길을 줄기차게 열어나가자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의 북남관계파괴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분렬사에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려온 남조선보수패당의 씻을수 없는 죄악이 기록되여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지난해초부터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세찬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그것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대해 《남남갈등과 미국과의 갈등을 노린것》, 《전형적인 화전량면전술》이라고 터무니없이 헐뜯어대며 대결광기를 부리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였을 때에는 《위장평화쇼》, 《북이 불러준대로 받아쓴 선언문》이라는 악담질로 모독하였다.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헐뜯으며 지금이 시각에도 동족대결소동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세력들을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도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올해에 들어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명목을 내세워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 연습을 비롯한 각종 훈련들을 강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끌어들인 《F—35A》 스텔스전투기들의 비행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것은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더우기 묵과할수 없는것은 얼마전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공화국군대의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해댄것이다. 군부호전광들의 망발은 미국과 야합하여 은폐된 적대행위에 매달리며 북남군사합의를 란폭하게 유린하여 이미 그에 대해 말할 자격을 깡그리 상실한자들의 뻔뻔스러운 넉두리로서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강문영

#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이루어나가자

## 남조선청년단체 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련대가 4월 27일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맞으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이루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삼천리강토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열기가 넘쳐났지만 미국과 적폐세력들이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미국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와 조선반도문제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북에 대한 제재압력을 강화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역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방해하면서 동족대결소동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청년들이 앞장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

#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

얼마전 남조선주둔 미군이 경기도 평택기지에서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전개훈련이라는것을 벌린 사실이 공개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난해말 훈련용《싸드》를 경상북도 성주기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적은 있지만 평택기지에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북에 압박성메쎄지를 보낸것이다고 평하고있다.

《싸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선제타격수단으로서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후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있다.

미국의 《싸드》전개훈련은 명백히 대조선제재압살정책의 연장으로서 어렵게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깨기 위한 군사적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소동이다.

지금 《싸드》전개훈련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비발치자 미국이 《공병부대가 참여한 화물호송훈련을 한것이다.》, 《해당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이지 〈싸드〉훈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구구히 변명해나서지만 그것은 평화의 파괴자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을 모면해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책동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에 비한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미호전계층의 전략에 따른것이다.》, 《〈싸드〉야말로 평화를 위협하고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 미제의 아시아침략의 필수적무기》라고 하면서 《싸드》철거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힘에 의거한 대조선압살책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기로 확약한대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힘으로는 우리를 놀래우기는커녕 그 무엇도 얻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을 비롯한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지 한주일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고성과 폭행, 드러눕기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며 극단적으로 발악해온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닭쫓던 개신세로 되였다.

이에 악이 받친 《자유한국당》은 《좌파세력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좌파세력들의 〈의회쿠데타〉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파괴하고 좌파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하면서 지정된 신속처리안건은 무효라고 고아대며 반《정부》망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얼마전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역적당무리들은 서울광화문광장에서 현 당국을 규탄하는 《3차장외집회》라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좌파세력》이 날치기로 쿠데타에 성공하였다, 《좌파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또한 《국회》 앞에서 삭발놀음을 벌려놓고 《독재초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횃불》을 높이 들자고 악청을 터뜨렸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과 광주 등 지방을 싸돌아치며 현《정권》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들을 련일 개최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 천하깡패집단의 부질없는 란동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인 김무성이 청와대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한다고 쉐쳐대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으며 《태극기부대》의 깡패무리들이 《자유한국당》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만사람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치권과 각계층 인민들은 《삭발을 하고 전국을 돌아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모일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국회에서 드러눕기, 고성과 폭행일삼기, 삭발하기 등 생떼부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장외투쟁말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치워라.》고 하면서 역적당을 단죄조소하고있다.

《국회》밖에서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란동은 정상적인 사고와 건전한 리성이 완전히 마비된 천하깡패집단, 림종에 다달은자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역겨운 추태이다.

《국회》안에서 드러누워 란동을 부리다 못해 밖에 나가서는 삭발놀음을 벌리고 《좌파독재》청산을 고아대는 역적당이야말로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불망종집단이다.

남조선력사에서 보는것처럼 원래 독재집단이라고 하면 온갖 권모술수로 권력을 강탈하고 민주, 민권을 깡그리 말살하였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더러운 사리사욕을 추구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이다.

더우기 황교안은 입이 열개라도 《독재》에 대해서 말을 할 체면도 없는자이다. 박근혜《정권》시기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틀고앉아 《종북세력의 집합체》라고 떠들며 합법적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파쑈교형리가 바로 황교안이다.

극악한 파쑈독재의 후예들이며 범죄자들인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제편에서 《독재》니 뭐니 비린청을 돋구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밖에 나가 《독재타도》를 떠들어대는 《자한당》에 돌아오는것은 민심의 저주와 분노뿐이다.

《자한당》해산을 바라는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미친개처럼 각지를 싸다니며 온갖 망동에 여념이 없는 역적패당은 더이상 살려두어서는 안될 천하의 추물들이다.

저들의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국회》를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밖에서 세인의 지탄만 받는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는 력사의 폐물집단에게 남조선민심은 등을 돌려댄지 오래며 이미전에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죽어가는 보수세력을 긁어모아 역겨운 광대놀음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제 목에 걸려진 올가미를 더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조길남